

# “민간특례사업 위반 날낫이 밝혀낼 것”

### 시민단체·도민공익소송단 오등봉 사업 소송 제기 토지구·주민 등 285명 참여... 5개 절차 위반 주장

오등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민간 특례사업을 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이 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한 도민공익소송단(이하 소송단)은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는 토지구 및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 도민 등 28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전 온라인을 통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 소송단은 “술한 문제와 논란에도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각종 심의를 이례적으로 단시간에 통과하고,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도 가뻐히 넘어섰다”며 “최근 비상식적인 협약 내용이 공개되면서 실시계획 인가 시점까지 못 박은 사실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사업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라며 제주시의 절차 위반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소송단이 제기한 위반 절차는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

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비 상태서의 사업 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등 5가지다.

오등봉 도시공원 개발사업은 76만 4863㎡ 부지 중 9만5080㎡에 지하 2층, 지상 15층,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투입되는 예산은 8161억으로, 평 당 최초 분양가는 1650만원 가량으로 책정됐다. 지난 6월 도의회가 '환경영

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하며 2023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각종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먼저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은 당초 1630세대로 제안됐던 아파트 세대 수가 1429세대로 줄었지만 사업비는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채당 8000만원 가량이 부풀려져 사업자가 1100억 상당의 추가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아울러 2020년 12월 제주시와 사업자가 맺은 협약서에서 '2021년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하지 않을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유'와 '사업자 동의 후 협약서 공개' 부분도 논란을 낳고 있다.

협약서에 따르면 제주시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해당 기간 만큼 사업기간을 늘려주거나 추가 비용에 대해 시가 보상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재협의를 가능하고, 수익률 8.9% 보장으로 토지 보상 가격으로 사업비가 오르면 결과적으로 분양가도 오르게 돼 큰 공분을 낳았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특혜는 없었다”며 “사업비는 세대수가 최종 확정되는 2023년 이후 변경될 예정이며 협약서는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을 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오등봉 개발사업과 관련해 도민공익소송단이 21일 제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상승 마약투약 30대女 집유

생활고를 이유로 마약에 손을 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을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지인이 보내온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코카인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카카오톡을 통해 코카인 등을 추가로 보내달라고 요청, 같은달 25일 마약이 든 국제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이전에도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송은범기자

##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추진 의견수렴”

### 도의회, 교육청에 촉구... 부교육감 “감사이후 진행”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답문 없이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무시·불통' 지적을 받았던 제주시 동지역 고등학교(평준화고) 신설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이뤄진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이어진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인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의 고교 신설 계획과 관련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며 진행돼야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박주용 부교육감은 이번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해관계자인 학교·지역사회 구성원 등과 의견수

렴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초쯤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의견수렴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교육위 행감 첫 날 오전 질의에서 제주교육 역사상 35년만에 이뤄지는 일반고 신설 교감 등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 부지 선정에 대한 공론화를 거칠 것도 주문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제주시 노형동 제주고 부지 내 미활용 일부 용지에 학년당 남녀혼성 10학급 학생수 290명 등 총

30학급 870명 규모의 공립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강시백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은 제주시지역에 집중 편중된 지역생산물 우선 구매 계약의 지역 격차 해소를 요구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22일 금요일 음 9월 17일 (9월)

###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20%	20%
10%	성산 20%	20%
10%	고산 10%	10%
10%	서귀포 10%	10%

### 주간예보

내일	구름 많음	13/20°C
모레	구름 많음	15/20°C

### 구름 많음

제주에는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4°C, 낮 최고기온은 18~19°C로 전망된다. 당분간 최고기온이 낮고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해돋이 06:44	달뜨기 18:53
해질미 17:52	달지기 07:57
물때	간조 11:35
	18:08
	23:24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관심	보통

###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	----	-------

###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	----	-------

##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 “찬공기 남하... 주말 쌀쌀할 듯”

제주에는 주말에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3일까지 아침기온은 12~14°C, 낮 기온은 18~20°C로 평년보다 낮겠다”며 “특히 23일까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기온이 낮아 추운 날씨 예상되며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요일인 24일에도 최저 14°C에서 최고 20°C로 평

년보다 낮게 전망됐다.

아울러 산지에는 아침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와 결빙이 예상돼 한라산 산행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한편 22일 밤부터 제주도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4m로 높게 예상돼 항해나 조업에 나선 선박의 주의가 필요할 상황이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 발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까지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중점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보형 등급의자다.

도는 올해 8619명을 목표로 대상자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7699명 대비 920명 증가한 수치다.

제주도는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돌봄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조사요원 49명을 채용했다.

이후 9월 한달 간 홀로사는 어르신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돌봄 수행기관(10개소) 전문 사회복지사의 방문 상담을 통해 돌봄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민간기관과 연계해 위기상황에 대처할 방침이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2021 문화재활용사업  
제주향교·탐라선비의 꿈을 잇다.

# 「제주도민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서예 회화대회」

**일시** 2021년 11월 7일(일요일) 09:40~14:00  
(9시30분 제주향교 집결)

**장소** 제주향교 경내

**운영개요**

- 대 상 : 제주도민(만19세 이상 성인) 선착순 30명 접수
- 용지규격 : 화선지 (규격 세로135 x 가로35) 2장이 주어져.  
※ 참가자는 낙관을 포함한 서예도구 일체를 본인이 지참합니다.  
※ 출품 및 입상작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 10월 22일(금)부터 신청서 링크 오픈  
• 제주향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ejuhyangkyo>  
• 제주향교 네이버 블로그 <http://jejuhyangkyo.or.kr>  
※ 제주향교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블로그에 게시된 신청링크를 클릭하여서 문항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접수)
- 참가비 : 1만원 (종식제공, 먹물제공) - 입금확인 시 최종 접수 인정

**시상(施賞) : 당일 발표 시상함**  
(제세공과금 본인부담)

장 원	1명	(상장 및 상금 50만원)
차 상	2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차 하	2명	(상장 및 상금 20만원)
특 선	7명	(상장 및 상금 5만원)
입 선	8명	(상장 및 상금 3만원)
가 작	10명	(상장 및 2만원 상당의 기념품 제공)

※ 시상내용은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예 회화대회 시제 3수 중 택1**

1. 浮海 安乘澤 先生 詩, 「雪裏山」,  
開門山不見 문을 열어도 산은 보이지 않고  
但見雪堆長 다만 눈 쌓인 언덕만 길게 보이네  
兒日雲歸處 아이들 말하길 구름 걷힌 곳에는  
孤松露翠蒼 외로운 솔 푸르름이 드러난다 하더라
2. 石友 金景鐘 先生 詩, 「西歸鎮見老人星」  
平生願見老人星 평생토록 노인성 보기를 원했더니  
幾到瀛南倚暮亭 몇 번이나 제주에 와 저문 정자에 기댔던가  
一點祥芒臨戶照 한 점의 상서로운 별빛 지붕에 비추는데  
居民大半總高齡 살고 있는 백성들 태반이 고령일세
3. 毅清 吳眞祚 先生 詩, 「漢孛山」  
地擘河漢立爲山 땅이 은하를 당겨 세워 산이 되었으니  
將去遠天咫尺間 장차 먼 하늘과 거리가 지척이로다  
鶴橋俱對仙潭近 오작교와 상대하는 백록담은 가까울고  
鳥道相通帝座閑 험한 길 서로 통하매 별빛도 한가하네  
三千里內誰高等 삼천리 안에서 무엇이 높이가 같을까  
萬八年來不老顏 만 팔년 이래로 늙지 않는 모습이라  
每召江南遊覽客 매번 강남의 노니는 객들을 부르는데  
登臨盡日却忘還 산에 올라 종일 보다 돌아감도 잊음이라

• 주최·주관 : 제주향교 · 제주향교문화재활용사업단 • 후원 : 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064-742-0105 / 010-5216-0470 • 추진위원장 - 철학박사 손효만